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는 승리> - 수 6:1-7

한 줄 요약 :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기고 나아가자!

1. 직면한 커다란 장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이 땅은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 성을 정복해야 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는 본래 그리 크지 않는 성이지만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견고한 성으로써, 요단 대평야의 서부 지역을 방어하는 요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견고한 여리고 성은 성문을 굳게 닫음으로써 모든 출입을 통제하고 전쟁을 치를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를 정복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계란으로 바위를 칠 때, 계란이 깨지는 게 아니라 바위를 깨뜨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도, 광야 생활하는 동안 수많은 전쟁 특히 아말렉과의 전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승리할 수 있었던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에는 7바퀴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일주일 동안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매일 성벽을 돌고 나면 7일째 되는 날 성벽이 무너질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으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2. 순종의 믿음 그리고 승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와 요단강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하고도 끊임없는 불순종과 배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순서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행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눈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계란으로 바위 치는 듯한 게 무모하다고 느끼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계란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바위가 깨지는 승리를 맞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벽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순종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기쁨의동산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 수 14:6-15

한 줄 요약 :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

1. 약속의 증인

가나안 정복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나 85세의 갈렙은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45년 전 그는 이스라엘 12지파 중 유다 지파 대표로서 모세가 보낸 가나안 정탐꾼 중 한 명이었습니다. 40일간의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온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 모세에게 긍정적인 보고를 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세는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라는 그에게 특별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해야 했고,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은 후 겨우겨우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45년의 세월이 흘러,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지난날을 그에게 상기시키며 모세가 자신에게 약속했던 대로 정복해서 취할 땅의 기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약속을 받은 날로부터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길에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갈렙은, 지금 그 약속에 의지하여 자신이 약속을 이루는 증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2.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특히 갈렙은 이스라엘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아낙 자손(민 13:33)이 살고 있는 산간 지방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갈렙은 현재 자신이 85세의 노인이지만, 예전에 모세의 명에 의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처럼,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시면 아낙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강조합니다.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정적으로 적들과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젊을 때와 달리 나이가 들면 도전적인 것보다는 안정적인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든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약속된 기업을 취하러 가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러한 갈렙의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였습니다. 갈렙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한 결과, 자신이 요구한 대로 토지를 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에 대한 보상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우리의 여정을 가로막곤 합니다. 그러나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믿고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를 선택할래?> - 수 24:14-21

한 줄 요약 :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자!

1. 여호수아의 제안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각종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호소합니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이자 명령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받았습니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지만,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신이 애굽의 신이든지 가나안의 신이든지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선언합니다. 마치 한겨울에,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계속 뛰어놀겠다고 고집부리는 아이에게, 부모가 아이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자신들은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때 끝까지 밖에서 뛰어놀겠다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부모에게 같이 가자며 집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강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자신처럼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믿고 따를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거룩한 결단과 삶이 전제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만약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맹세했다가 그 약속을 어기고,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선택하라고 경고합니다.

2. 연약한 인간의 의지

이러한 여호수아의 경고 후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응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 듯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여러 우상을 제거하지 못하고, 또다시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맙니다. 이는 인간의 의지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우리 역시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을 잘 알지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역시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말씀보다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끝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달라고 간구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떠난 백성들> - 삿 2:8-15

한 줄 요약 :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징계하신다.

1. 불순종의 시작

모세는 여호수아라는 후계자를 선택하고 죽었으나, 여호수아는 아무런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도 다 죽고 사라졌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들의 바로 다음 세대가 신앙적 유산을 제대

로 이어받지 못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생각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저 수많은 여러 신 중 하나였을 뿐 유일한 신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겉으로는 예배의 형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 나라 백성들의 신들에게 절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 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대적을 내쫓을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모든 대적자에게 패배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제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대적자들에게 연전연패(連戰連敗)할 수밖에 없습니다.

2. 훈계의 채찍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결과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훈계의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긍휼히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사사를 세워 그들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사사가 죽은 후, 이스라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돌이켜서 자신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주셨는데, 그것을 망각한 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만 잘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일평생 하나님만 잘 섬기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고문헌>

1. HOW 주석 2. 엑스포지멘터리 3. NAC - 여호수아 4. 매일성경전집
5. QA시스템 성경연구 6. BKC